

제20회 국무회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레임덕 문제와 단임제 임기말의 아쉬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레임덕이 없다”는 발언이 특히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단임제의 한계와 그 보완책’을 강조한 것이었다. 발언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당시 발언 내용 전체를 정리해서 소개한다(5. 16.). <편집자>

□ 민주주의 확립되면 레임덕은 거의 없다

레임덕 얘기가 한참 나오고 정상회담도 하지 마라, 정책 발표도 하지 마라 하더니 지금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부처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에 레임덕 현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덕입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정부 내부의 레임덕이라는 문제는 과거의 일입니다. 민주주의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국가관과 직업관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또 법에 의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확립되면 공직사회에 레임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치권의 비협조는 공무원 의욕 떨어뜨려

레이덕 이전에 정치적 협력이 안 된다는 점이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정치권의 비협조로 인해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단순히 국회에서 여당의 의원 수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입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책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여당의 협력도 받기 어렵게 됐으니까, 공무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국회에 가면 여당에게도 협조를 구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걸려버린 법이 자치경찰법을 비롯해 몇 가지 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돌이켜 보면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이 거의 다 계획대로 된 것 같다는 점입니다.

□ 단임제의 한계, ‘임기 중에 끝낼 수 있을까?’

그러나 걱정은 남습니다. 단임제의 한계입니다. 요즘 일을 할 때마다 ‘지금 시작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규제개혁 얘기를 하다가도 임기 안에 이를 마무리 할 수 있을까, 그동안의 경험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연구결과와 성과들이 다음 정부에서 호지부지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개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자기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만들고 싶은데요. 정말 해보고 싶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게 임기 중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김이 빠지고, 저 스스로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개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기 국회의 약속으로 넘겨졌지만, 다음 대통령도 이런 단임제의 어려움을 또 다시 겪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공무원은 임기 없어...정책을 부처 과제로 뿌리 내리게 해야

현실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공직자는 임기가 없잖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이런 취지를 얘기하고, 이 과도기야말로 여러분이 더 열심히 일을 할 때라고 독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중요한 과제와 정책은 부처의 업무로 확실하게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정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담당부처와 책임자를 정해서 부처의 과제로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기 상관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부처에 뿌리박은 정책은 다시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부처 공무원들이 좋은 정책의 중심을 잡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유야무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각 부처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람 있는 행정, 가치 있는 국정을 하도록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기간과 상관없이 연속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나가는 길일 것입니다.

국정운영 경험이라는, 나라의 소중한 자산을 담는 일이기도 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니까요, 공감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